얼음 목욕·얼린 과일에 영양제까지 동원

우치동물원 여름전쟁 시작

"얼음 목욕은 기본, 에어컨 방에 앉아 얼린 과일에 영양제까지…."

광주 우치동물원 가족들의 여름 전쟁이 시작됐다. 최근 30도를 훨씬 넘는 때 이른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치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치동물원은 동물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얼음 수박과 얼린 생선을 제공하는 한편, 그늘막이를 설치하는 등 무더위를 쫓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막사 에어컨 가동·그늘막 설치 필수

사육사들 동물가족 건강유지 안간힘

북극곰(백곰)은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 어김없이 방사장 앞에 있는 33㎡(10평)의 대형 시멘트 욕조에 몸을 담근다. 사육사는 하루에 두 번 욕조의 물을 시원하게 바꿔주고, 얼음 덩어리도 띄워준다. 먹이는 닭·캥거루·사과·야채 등을 한 데 넣어 물에 얼린 뒤 잘라 준다. 음식들이 얼음 안에 박혀있는 형태인데, 이 얼음과자를 넣어주면 북극곰은 혓바닥으로 핥거나 몸을 비비고 먹는다.

코끼리도 무더위가 반갑지 않다. 코끼리 가족(두 마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물세례. 사육사들은 하루 평균 두 차례씩 10여 분에 걸쳐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려준다. 사육사들이 등목을 해주면, 코끼리들은 코를 뒤로 젖힌 채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한다.

펭귄에게 무더위는 상극. 펭귄은 추운 날씨에 익숙한 터라 여름만 되면 힘없이 '축축' 늘어진다. 동물원은 33㎡ 크기의 펭귄 우리 에 지난 1일부터 에어컨을 틀었다. 가동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25도 이하를 유지한다.

사슴·낙타·얼룩말 등 초식동물 우리 그늘막이엔 가로·세로 20㎝ 크기의 '미네랄블록'(mineral block)을 달아놨다. 초식 동물들은 그늘 아래서 이 벽돌처럼 생긴 영양제를 핥아먹으며 더위를 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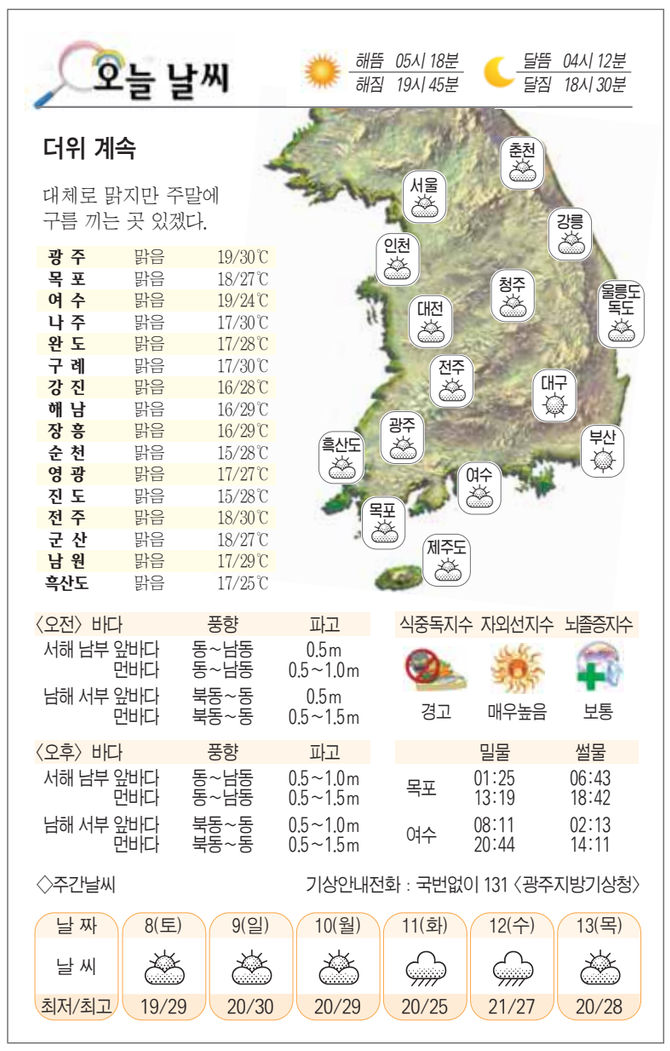
침팬지·일본원숭이·히말라야 원숭이 등에겐 하루 평균 한 번씩 영양제를 제공한다. 무더위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사육사들의 배려다.

반면, 사육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무더위를 이겨내는 동물도 있다. 닭과(호로조·오골계 등), 꿩과(긴꼬리꿩·황금계·은계 등) 등 날짐승은 '모래 찜질'을 하며 피서를 즐긴다. 모래를 판 뒤 가슴을 땅에 대고 가만히 있는다. 땅 속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이용해 더위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때 이른 무더위에 동물원의 부담도 만만찮다. 전기료는 평상시 200만원 수준이지만, 여름에는 300만원 가량이 나온다. 여름 수도료는 1000만~1200만원에 달한다. 보통 600만~800만원인 것에 비하면 25~66% 정도 더 많은 셈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낮 최고기온이 31.8도를 기록한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생룡동 우치동물원, 사육사가 무더위를 식혀 주기 위해 물을 뿌려 주자 아기코끼리가 입을 벌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말·휴일 불볕더위…외출시 자외선 주의

6월 둘째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 지역에는 때 이른 불볕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외 활동시 자외선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8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 최고 기온이 30도, 여수 25도, 목포 27도에 이르는 등 광주·전남 지방에 한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 6일 밝혔다.

주말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음'까지 올라가면서 야외 활동시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눈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이번 더위는 11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후 기온이 잠시 떨어지며 주춤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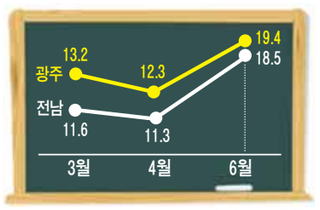
올 수능 'A형 갈아타기' 속출 예고

영어영역 가산점 불구

모의평가 난이도 차 커

고3 진학지도 비상

■ 광주·전남 수험생 영어A형 지원율 추이(%)



〈자료:광주시·전남도 교육청〉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의 난이도 차가 뚜렷함에 따라 수험생들의 'A형 갈아타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광주지역 진학부장들에 따르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5일 전국적으로 시행한 '201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선택형 수능의 변수인 영어영역은 A/B형간 난이도 차이가 뚜렷했다.

영어 B형은 지문의 길이가 길고 정치·경제·환경 등 다소 전문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이에 비해 A형은 EBS 지문을 쉽게 변형 출제한 것이 많았고 주제도 도표·안내문과 같은 실용문에서 많이 나왔다. EBS와의 연계율도 A형 73.3%, B형 71.1%로 A형이 다소 높았다.

이처럼 영어영역의 유형별 수준 차가 분명히 드러남에 따라 본수능에서는 어려운 B형에서 쉬운 A형으로 갈아타는 수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학교에서도 영어B형 선택에 따른 이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하위권 학생들에게 A형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상위권 대학은 영어B형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생들은 영어B형을 위주로 공부했고 6월 모의평가에서도 82.3%가 B형을 택했지만, A/B형간 수준 격차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수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는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영어 A형을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만큼의 충분한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형수 광주진학부장협의회장(고려고 진학부장)은 "6월 모의평가에서 유형별 난이도 차가 뚜렷하게 남에 따라 9월 모의평가부터는 B형에서 A형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전남대 전체와 순천대·목포대·동신대 상위권 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영어 4등급 이상 수험생들은 영어B형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A/B형 모두 허용한 조선대 등은 영어 A형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조선대는 영어B형에 가산점 20%를 주기는 하지만 영어B형 5~6등급이 A형으로 갈아타면 1~2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어 가산점 20%를 상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도 영어B형에서 너무 낮은 점수를 받으면 어려운 유형을 선택하는 이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A형 선택을 유도할지 고심 중이다.

B형에서 A형으로 갈아타기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감지됐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3월 학력평가때 13.2%와 11.6%였던 영어A형 응시율이 4월 학력평가에서 12.3%와 11.3%로 약간 떨어졌다가, 6월 모의평가는 19.4%, 18.5%로 7.1%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학원·예식장 등 다중이용 시설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앞으로 학원, 공연장, 예식장 등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성을 높이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0㎡ 이상 학원과 공연장, 2000㎡ 이상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건축공간 활용성 확대 등 국민편익을 위해 전력용량 150kw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던 전기설비 설치공간 의무 확보 규정은 폐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벽에 설치된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위암 발생 돌연변이 유전체 국내 첫 확인

차병원 그룹·서울대 교수팀

우리나라 위암 발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위암'에 관여된 대규모 유전체 돌연변이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통 유전체가 불안정하면 암을 유발하기 쉽다. 유전체 불안정성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이다.

우리나라 위암의 10~15%가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에 의한 위암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미부수체란 인간의 전체 유전자 중 같은 염기가 반복된 부위를 말한다. 이 부위에 염기가 결손되거나 삽입된 게 복원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암이 발생한다.

차병원그룹 차암연구소 김성진 소장팀과 서울대 의대 외과 양한광 교수팀은 한국인 위암 환자 16명의 유전체를 해독하고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위암에 관여하는 돌연변이 133만2422개 전체를 찾아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